

# “ESG 확립 원년...농어업인 체감 경영시스템 혁신”

2022년 지역경제인에게 듣는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시대변화 부응 역할·기능 강화  
‘KRC농어촌 뉴딜’ 역량 집중  
농지제도 개편...맞춤형 지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어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3일 온라인 사무실을 갖고 “올해 경영 방향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체계적인 기반을 확립,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사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농어업·농어촌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KRC농어촌 뉴딜’에 대한 성과를 창출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전문성과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안전한 농업 ▲건강한 국민 먹거리 제공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성 ▲사람이 모여드는 농어촌 등 4개 분야 21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미래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변화대응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내부 역량 강화와 경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생산기반과 ICT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신성장사업 발굴 및 정책 사업화에 힘쓰기로 했다.

김 사장은 “식량 생산기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안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농지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의 취득부터 이용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KRC 지역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쾌적한 농어촌 공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을 친환경·저탄소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어업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해 농어업

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KRC생태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농어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보수와 배수개선사업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전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철저한 사업시행 및 시설관리로 공사의 모든 사업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 저밀도 업무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업무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각 사업분야 별로 특성에 맞는 직원 역량강화로 구성원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도입한 ESG 경영의 성과를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현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더욱 살기 좋은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농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이지우 중진공 전남동부지부장 취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남동부지부장에 이지우 지부장(51·사진)이 부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부장은 “중진공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효과적으로 총동원해 전남동부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ESG경영전환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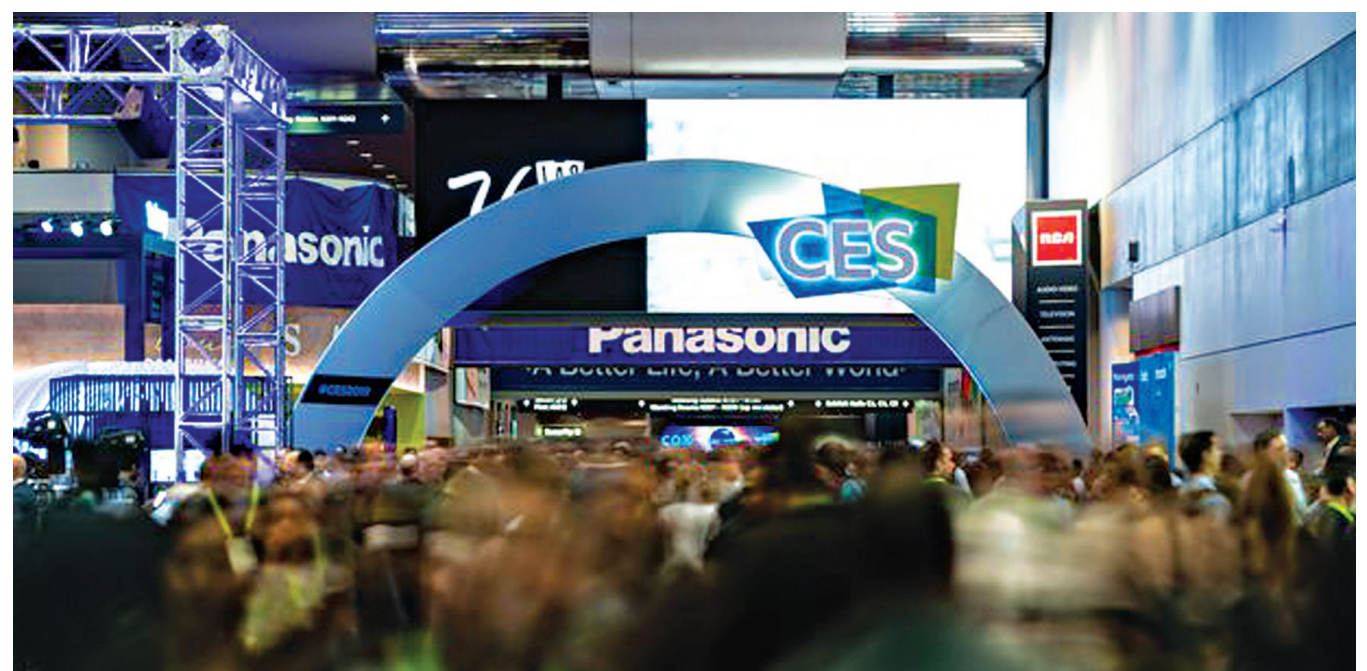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 지부장은 성균관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월 입사 이후 성과보상사업처, 서울동남부지부, 중소기업연수원 등에서 근무하며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혜린 기자

## 미래형 모빌리티·NFT·AI 첨단기술 겨룬다

여기는 라스베이거스 CES 2022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내일 개막  
7일까지...삼성·LG 등 국내 기업 대거 참가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가 오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올해는 규모를 줄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의 주요 키워드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비롯 ▲헬스케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AI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몇 년 동안 전시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은 올해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트위터, GM 등 주요 업체들이 대면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주최 측도 5-8일로 예정된 일정을 하루 단축해 7일에 폐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LG·SK·현대자동차·SK·포스코·현대중공업·두산 등 국내 대기업들은 현장 참여를 강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까지 가세하면서 세계 관련 업계의 이목이 한국기업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가 CES 홈페이지에 국가별 참가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CES 2022에는 총 2,200여개사가 참가한다. 이 중 미국 기업이 1,300여개사가 가장 많았고, 한국 기업이 약 500개사가 참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한범 KICTA 상근부회장은 “국내 CES 참가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혁신기술을 개발해 해외진출을 목표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CES는 1967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작은 가전 행사로 시작했다. 55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다. 그간 CES에서 발표된 신기술 중에는 1968년 컴퓨터 마우스, 1981년 CD 플레이어, 1996년 DVD, 1998년 HDTV, 2005년 IPTV, 2014년 3D 프린터 등 인류의 삶을 바꿨던 기술들이 있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CES2022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 /미국소비자기전협회 제공

##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 지난해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 10년만 최고치

지난해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10년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02.57(2020년=100), 전남 102.62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광주·전남 모두 2011년

(4.1%, 4.5%) 이후 10년만에 최대 상승 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출목적별로는 달걀(47.3%)과 돼지고기(12.1%) 등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전년비 6.3% 올랐으며, 교통(6.2%), 음식·숙박(3.2%), 가정용품·가사서비스(2.0%), 기타상품·서비스(1.8%)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통신(-1.1%)과 보건(-0.1%) 부문 등에서는 하

락했다. 전남은 지출목적별로 통신(-1.2%), 보건(-0.2%) 부문은 제외한 전반적인 부문이 상승했다. 휘발유(1.47%), 경유(15.9%), 자동차용LPG(16.9%) 등 석유류 상승으로 교통이 전년비 7.5% 올랐고, 식료품·비주류음료(5.1%), 음식·숙박(2.7%), 주택·수도·전기·연료(1.9%) 등에서 상승했다. /김혜린 기자